

한국방문조사용 '생명교육 프로젝트'에 관한
소개자료



북海道교육대학 교직원대학원에 의한
'생명교육 프로젝트'
- SOS를 보내는 교육법을 중심으로 -

이도 마사미(북海道교육대학 교직원대학원 교수·원장)
우메무라 타케히토(북海道교육대학 교직원대학원 특임교수)
카와마다 토모미치(북海道교육대학 교직원대학원 준교수)



2019년 2월 18일

문부과학성 '초중생의 자살예방에 관한 조사연구협력회의' 발표자료 일부 발췌본

1. Preface

오늘날, 학교관계자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중고생들의 낮은 자존감, 타인에 대한 배려·윤리관의 결여 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왕따, 학대, 가정폭력, 자살 등 생명에 관한 문제가 사회기반을 뒤흔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북해도교육대학 교직대학원에서는 '16년도부터 '생명교육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음.

북해도교육대학에서는 본 프로젝트 이전에도 '생명을 소중히하는 교육' ('12년도~)을 추진해왔으나,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교직대학원이 조직적 교육실천연구로써 추진해온 바 있음.

특히,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本橋豊센터장)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북해도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동향을 파악하면서 교육실천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생명교육 프로젝트 6개의 주요 추진방안

본 프로젝트에서는 상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6개의 주요 추진방안을 설정하여 교육실천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① 인간형성과 성장의 기반이되는 교육으로써 ‘마음을 키우는 독서교육’
- ② 하루하루의 고민이나 인관관계의 알력등으로 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스트레스 경영교육’
- ③ 고난이나 스트레스를 견디고, 맞서는 ‘Resilience교육’
- ④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을 촉진시키는 ‘건강교육’
- 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안전교육’
- ⑥ 자살자를 한 명이라도 감소시키는 인관관계나 사회기반조성을 추진하는 ‘자살종합대책’

이상을 교직대학원 강의나 교원면허갱신학 습등 본원의 교육활동에 편성하고 있음

3. '18년도의 주요실천행사 및 사업

- (1) 'SOS를 보내는 법의 교육' 실천 ▶ 'SOS를 보내는법을 배우자'
현재, 젊은이의 자살종합대책의 중요한 교육으로써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SOS를 보내는법에 관한 교육'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도쿄도 아다치구가 선진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본교 역시 북해도에서 실시하고 있음
 - ☛ 이 교육에 대해서 한국방문조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2) '생명교육Yes/No카드학습' —홈페이지에서 가능—
6대 추진방안에 해당하는 내용 '스트레스 경영교육' 'Resilience교육' '건강교육' '안전교육' 'SOS를 보내는 법·알아차리는 법' '자살종합대책'을 퀴즈로 만들어 풀 수있도록 함(현재 70문제를 작성함)
- (3) '생명교육 프로젝트2019—SOS를 보내는 법·알아차리는 법—' (2019년 3월 6일)
초등학생·중고생·젊은이가 곤란할 때나 괴로울때에 'SOS를 발신' 할 수 있을 것, 또 주변 사람이 그것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들 것을 목표로 개최함 (한국의 자살대책조사를 포함한 2019년 2월 26일~ 3월 1일)

(4) 「생명교육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성과공개

본 프로젝트의 실적,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http://www.ido-labo.com/edu4life/>

생명교육 심포지움 2019

예고



いのちの教育シンポジウム2019

テーマ SOSの出し方・気づき方

主催 北海道教育大学教職大学院

共催 国立精神・神経医療研究センター 自殺総合対策推進センター(JSSC) 後援 北海道教育委員会 札幌市教育委員会

日時

2019(平成31)年
3月6日(水)
13時00分～17時30分(開場12時半)

会場

札幌市男女共同参画センター
(エルプラザ)3階大ホール
TEL: 011-728-1222 HP: <http://www.daijyo.si-plaza.jp/>

参加費

無料 事前にお申込みください
シンポジウム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
011-778-0607(いのちの教育プロジェクト事務局)



(Mapionより転載)

氏名、所属、連絡先を記入の上、下記に送信ください。
[e-mail] inochi.kyoiuku@gmail.com
(事務局:教職大学院院長室)

北海道教育大学教職大学院では、「いのちの教育プロジェクト」を推進しています。児童生徒・若者の健やかな成長を促すためには、教育がその根幹に命と心を添えることが必要だからです。今回は2017年のシンポジウムに引き続き開催します。特に、自殺、いじめ、虐待等、喫緊の課題に対して、「SOSの出し方・気づき方」の具体的な方法について提案し、議論したいと考えます。

プログラム

<p>1. 挨拶 13時00分～13時05分 船大治夫(北海道教育大学学長)</p> <p>2. 趣意説明 13時05分～13時20分 井門正典 (北海道教育大学教職大学院教授・院長)</p> <p>3. 実例報告 13時20分～13時50分 「SOSの出し方を学ぼう」 川原智路(北海道教育大学教職大学院准教授) 梅村武仁(北海道教育大学教職大学院特任教授) 井門正典</p> <p>4. 第1 13時50分～14時35分 「SOSの気づき方とストレスマネジメント」 安川誠高(北海道教育大学教職大学院教授)</p> <p>5. 「SOSの出し方・気づき方」質疑応答 14時35分～14時50分</p>	<p>6. シンポジウム 15時00分～16時00分 「学校と教師は、子どもと若者に対するいのちの教育にどう取り組めばよいのか」 企画・司会 井門正典 シンポジスト 寛瀬匡宗(北海道教育委員会学校教育局専事 <生徒指導・学校安全>主任指導主事) 津田政明(札幌市教育委員会児童生徒指導課 児童生徒指導係長・指導主事) 藤巻浩一(北海道教育大学教職大学院准教授) 川原智路 安川誠高</p> <p>7. シンポジウム質疑応答 16時00分～16時15分</p> <p>8. 第2 16時25分～17時10分 「子ども・若者に対する生きることへの包括的支援—その議論—」 本講座(自殺総合対策推進センター・センター長)</p> <p>9. 全体質疑応答 17時10分～17時30分</p>
--	--

*本シンポジウムは厚生労働省推進調査事業費補助金(政策科学総合研究事業H29-政策-指定-004)「地域の実情に応じた自殺対策推進のための包括的支援モデルの構築と展開方案に関する研究」と北海道教育大学教職大学院による連携事業として開催します。

いのちの教育プロジェクトホームページ (<http://www.ido-labo.com/edu4life/>) で成果の公開しています

4. 'SOS를 보내는 법을 배우자'의 수업실천

(1) 수업실천 1 교시(45분~50분)내 실천

내용구성

- ① 자존감을 높이는 '공유체험'에 관한 Stage
- ② SOS를 보내는 법을 가르치는 Stage

(2) 실천의 평가

① 설문조사에 따른 평가「(SOBA-SET)」

곤도 타쿠가 개발한 자존감 측정척도를 조사시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누구나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마음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의 3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였음. 또,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감상을 기술해줄 것을 부탁하였음

② 교육진행자에 의한 교육성찰-비디오녹화 등의 활용

수업진행의 모든것을 녹화하였음. 교육진행자의 교육전·후 토의를 반복하여 영상을 확인하거나 학습자의 설문기술 등을 감안하여 교재나 수업진행방식의 개선을 도모하였음



SOS를 보내는 법을 배우자

북해도교육대학 교직원대학원
생명교육 프로젝트 팀



금일의 진행순서

- 1. Introduction: 생명의 소중함**
- 2. 자신의 '공유체험'을 회상해보자**
- 3.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4. 설문조사 실시**





Introduction: 생명의 소중함

❖ 매년 기다리고 있는 한 장의 새해인사편지

- 우메무라씨가 11년전에 삿포로시의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클럽 활동으로 아침에 연습을 하고 있는 한 여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 학교에 AED가 설치되어 있어, 응급처치연습을 받았던 선생님들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수송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살아났다.
- 선생님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미국에서 이식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상황이었다.
- 새해인사편지는 그 가족으로부터 매년 받았던 것으로 올해에는 사회인 1년차(취업한지 1년차)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 이 이야기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우리들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지식과 기술을 지녀야한다는 것이다.





Introduction: 생명의 소중함

❖ '지식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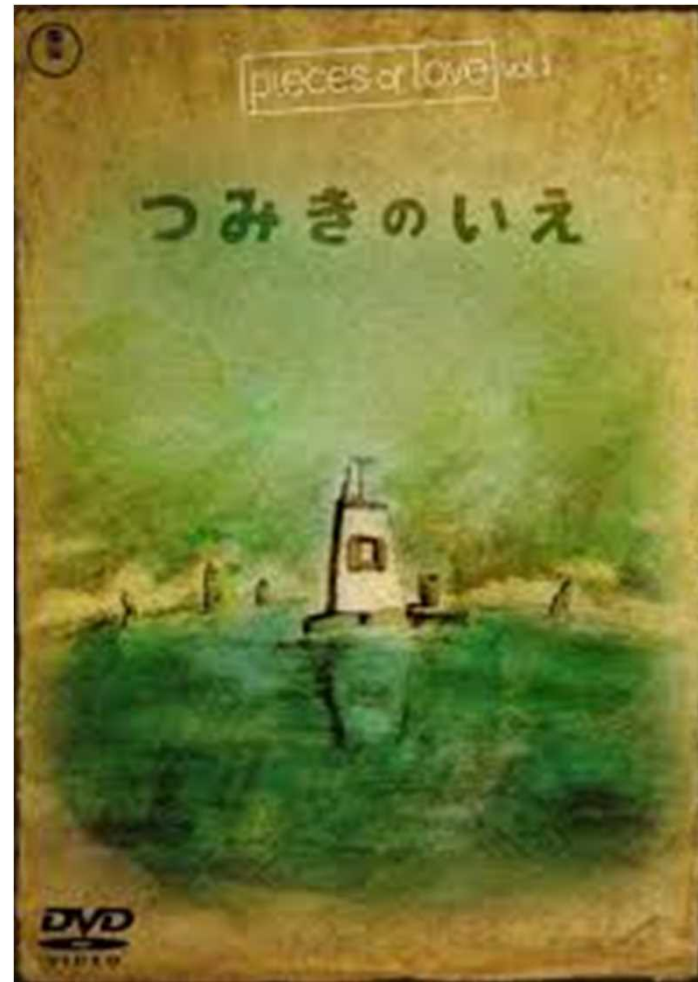




공유체험을 회상해보자

❖ DVD '쌓아 올린 집'을 보고, 자신의 '공유체험'을 회상해보자.

- 본 자료는, DVD와 그림책의 스토리 전개 차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분을 각색하였습니다.



쌓아 올린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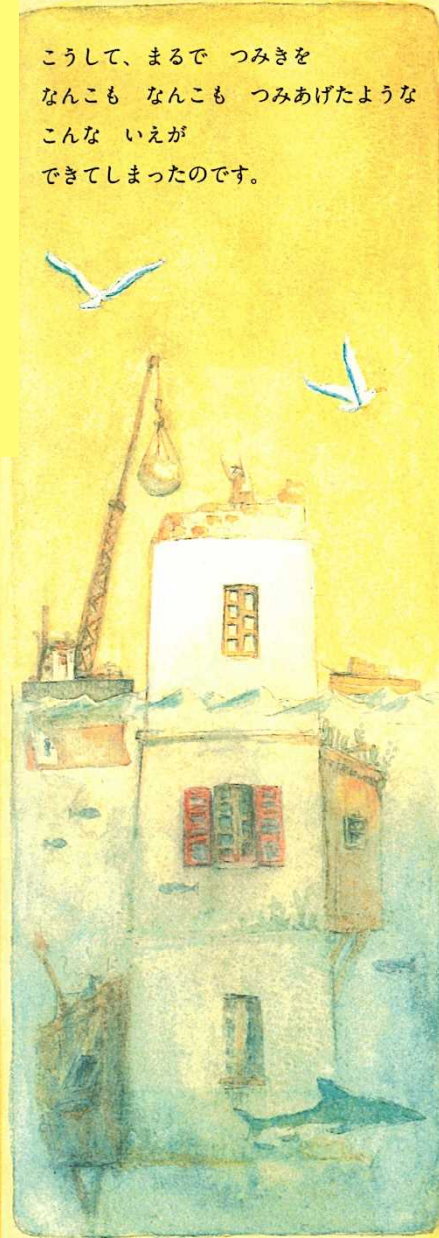
한 할아버지가 바다위에 있는
조금 특이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도시는 바닷물이 점점더 위로 올라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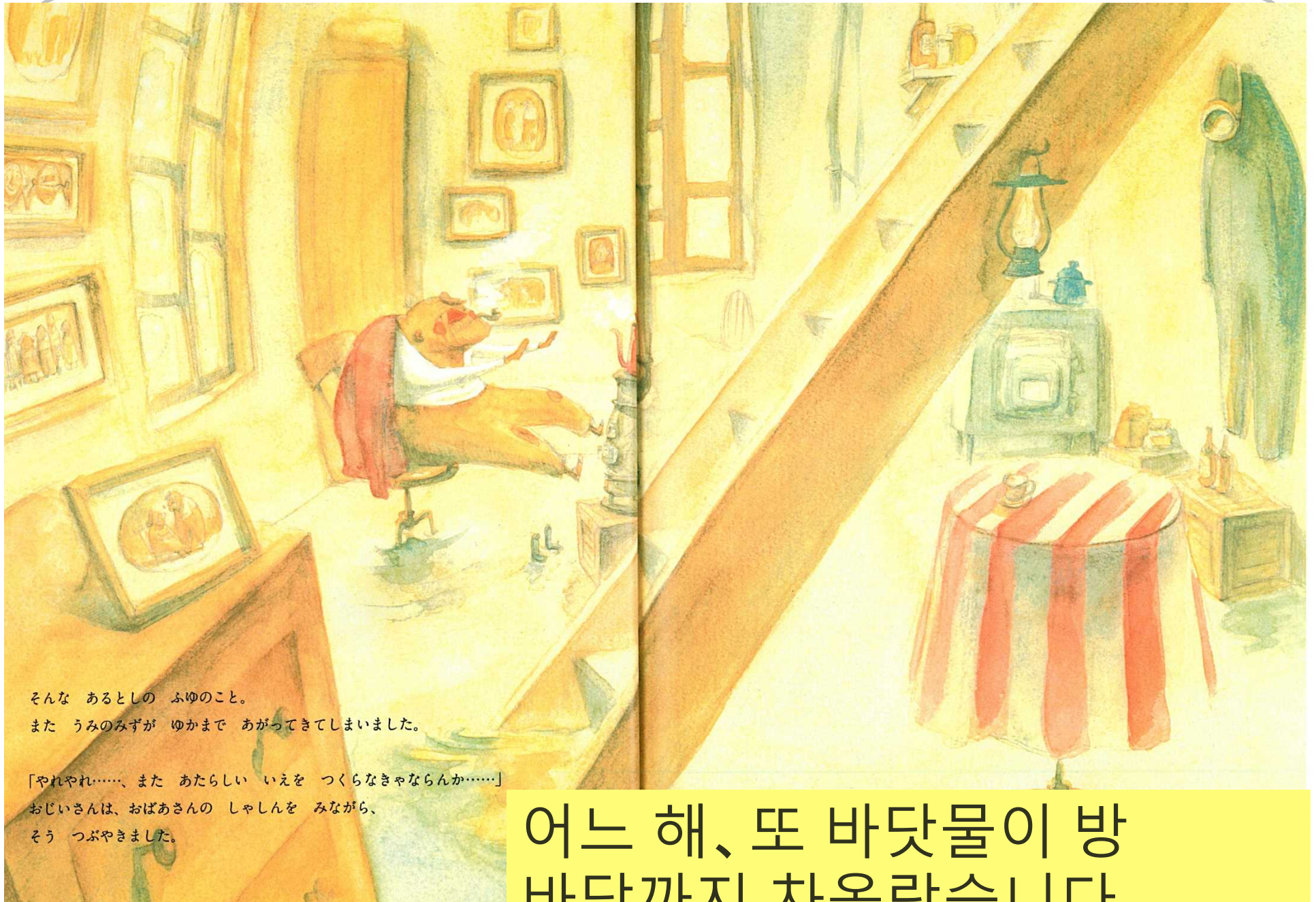


물이 차올라 집이
잠겨버리면 그 위에
새로운 집을 만듭니다.
그렇게 집이
쌓아올려진 겁니다.



こうして、まるで つみきを
なんこも なんこも つみあげたような
こんな いえが
できてしまったのです。





そんな あるとしの ふゆのこと。
また うみのみずが ゆかまで あがってきてしまいました。

「やれやれ……、また あたらしい いえを つくらなきゃならんか……」
おじいさんは、おばあさんの しゃしんを みながら、
そう つぶやきました。

어느 해, 또 바닷물이 방
바닥까지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또, 새로운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いまよりも もっとたくさんの ひとが すんでいました。
でも みんな いえを つくりつづけるのを やめて
ひっこしていってしまいました。

けれども おじいさんは ぜったいに
このいえに すむのを やめませんでした。



ところが あるひのこと、
いえをついていた おじいさんは
だいしっぱいを してしまいました。
「あっ……! だいくどうぐが……」

そう おもったときには、
のこぎりや かなづちは
したの したの したのいえまで、
うみのなかを
おちてい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런데, 할아버지는
바다에 담배 파이프와
목공구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잠수하여
가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야기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

- ❖ 잠수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추억에 잠기기 시작한다. 3년전에 사망한 아내, 자식과 함께 놀고 있는 아내와 자신,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한 장면, 소꿉친구였던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 잠수를 하면 할 수록,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게 된다.
- ❖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맨 위의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죽은 아내의 사진을 놓고, 잔 2개에 와인을 따르면서 편안한 미소를 짓는 장면에서 끝이 난다.





시청 소감을 알려주세요.

- ❖ 영상을 보고 느낀점은 있으신가요? 또, 영상의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이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떠오른대로, ↓의 여백에 써봅시다.





공유체험이란

- ❖ '공유체험'이란 다른사람과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생활, 학교생활, 교외활동, 학원생활 등. 다양한 곳에서 인간은 '공유체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공유체험'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 (자기긍정감이라고 합니다.)란 생각을 보다 강화시켜 줍니다.
- ❖ 인생에서 망설임,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자기긍정감이 당신의 용기를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란

❖ 통상 스트레스 상태를 50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다음상황의 스트레스는 몇점이라고 생각됩니까?

(夏目、2008을 참조)

- 시험을 치는 것
- 친구와 싸우는 것
- 대학입시
- 실연
-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
- 친한사람이 죽는 것





마음의 상태란

❖ 통상 스트레스 상태를 50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다음상황의 스트레스는 몇점이라고 생각되니까?

(夏目、2008을 참조)

- 시험을 치는 것 58점
- 친구와 싸우는 것 59점
- 대학입시 65점
- 실연 68점
-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 69점
- 친한사람이 죽는 것 80점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면

마음의 상태는 누구라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 ❖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움 / 항상 피곤함
- ❖ 일이 잘 안풀림, 즐겁지 않음...

- ❖ 점점더 자신이 없어짐
- ❖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생김
- ❖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듦





마음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 ❖ 심호흡을 한다. 운동을 한다.
- ❖ 좋아하는 것을 한다. 짜증을 푼다.

- ❖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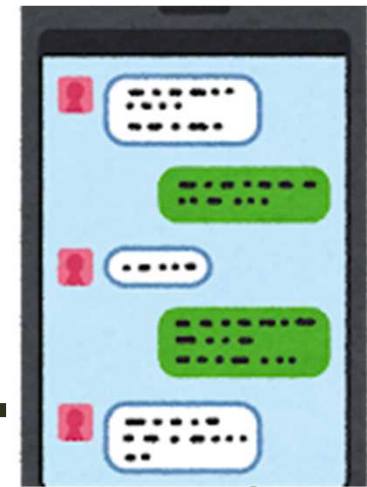
- ❖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신뢰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자

- ❖ 신뢰 할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자신의 마음상태를 얘기하면 해결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 ❖ 도와달라는 사인, **SOS**를 보내도 되는 것입니다!
- ❖ 보호자, (양호실의) 선생님, 학교 전문 상담사, 친구들
- ❖ 가까이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만나는 것
- ❖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는 것
- ❖ **E-mail**로, 카톡(라인)으로, 트위터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상담할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 마음의 상태에 관한 전화상담처
 - 마음의 건강 종합 다이얼 (011-622-0556 (평일9시~17시), 0570-064-556, 평일17시~21시, 토일·공유일10시~16시)
 - 차일드라인 (0120-99-7777, 월~토 오후 4시~9시)
 - 아이들의 인권 110번 (0120-007-110, 평일 오전 8시반 ~ 오후 5시 15분)
- ‘SNS상담을 하는 단체 - 13단체’로 검색하면 후생노동성의 H.P.에 연결됩니다.
(제공한 자료에 일부 연락처를 게재하였습니다.)





만약 상담을 해온다면?

- ❖ 우선은 잘 듣고, 걱정을 해주세요.
- ❖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담해볼 것을 권해봅시다.
 -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연락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방문해보세요.

- ❖ <http://www.ido-labo.com/edu4life/>
- ❖ 「ido、생명교육」으로 검색!

- ❖ 마음을 키우는 독서
- ❖ 스트레스 경영
- ❖ 교직대학원의 프로젝트 진행 현황 등
- ❖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상담처

- 일반사단법인 사회적포섭 서포트센터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BOND프로젝트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역생활지원 네트워크살롱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OVA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차일드라인지원센터
- 일반사단법인 일본생명의 전화연맹
- 24시간 어린이SOSO다이얼
- 법무국·지방법무국 어린이 인권110번
- 도도부현 경찰의 소년상담창구
- 아동상담소 전국 공통 다이얼

전화를 통한 상담처

- 차일드 라인
- 생명의 전화
- 마음의 건강상담 통일 다이얼
- 어린이 인권 110번

P.S.(본 발표에서는 명칭만을 소개)

(2) 실천의 평가

① 통계적 조사결과

수업전후 참가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콘도(2013)이 개발한 자존감 측정척도(SOBA-SET)를 사용하여 사회적 자존감정(SOSE)과 기본적 자존감정(BASE)을 교육전후로 측정하였음(각각의 내용은 표1을 참조).

덧붙여, SOS를 보내는법에 관한 심리교육이 정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9. 누구라도 마음의 상태가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0.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A) 주변 사람의 마음상태가 나빠졌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21-(B) 마음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학교에 있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보건사 등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상담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등 심리교육의 내용에 속한 3개의 질문(21번은 B중학교(A), C중학교와 D중학교를(B)를 활용함)을 4건법(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으로 수업전후에 조사하였음

표 1 사회적 자존감정과 기본적자존감정의 설명 (콘도(2013)을 참조하여 작성)

사회적 자존감정 (SOSE)	기본적 자존감정 (B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받고, 주시되는 것으로 인해 열기구와 같이 부풀어 오름•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우열에 따른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과 감정을 공유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탑을 쌓는 것 과 같이 형성• 비교가 아닌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감정

설문용지의 질문항목

‘SOS를 보내는 법을 배우자’에 관한 설문조사 요청

북海道교육대학 교직대학원
생명교육 프로젝트 연구 그룹

수업 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SOS를 보내는 법을 배우자’란 수업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임의로 5분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엄중하게 관리되어 결과는 수치로 집계되기 때문에 기입한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은체로 학회, 학술잡지, 연구 그룹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협조 해주실 경우에는, 이하의 질문항목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다음 문장을 읽고, 자신의 기분에 가장 알맞은 곳에 ○을 표시해주세요.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실패했을때,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은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장점도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나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마음의 상태가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학교에 있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보건사 등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상담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 강좌에서 새롭게 배운 것, 인상에 남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업진행은 A시의 시립 B중학교의 1학년 127명, C중학교의 2학년 113명, D중학교 2학년 33명을 대상으로 필자들이 수업을 직접 진행하였음. 참가자들에게는 사전에 담임교원으로부터 'SOS를 보내는 법에 관한 교육' 수업이 있다는 것을 전달 받고, 참가 동의를 얻은 바 있음.

D중학교의 수업에서는 지역의 보건사에 출석을 요청하여 보건사가 수업 중에 간단히 상담소의 소개를 하였다. 이는 지역에 신뢰 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아다치쿠의 선례를 참조하여 반영한 것이었다.

3개의 수업전 사회적 자존감항목의 유효회답수가 211명, 수업후 사회적 자존감항목 SOSE항목의 유효회답수가 232명, 수업전 기본적 자존감항목 BASE항목의 유효회답수가 218명, 수업후 기본적 자존감항목 BASE항목의 유효회답수가 232명이었음.

유효회답수가 다른 이유는 SOBASET에 의한 회답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및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존감항목 SOSE의 평균치는 수업전이 15.02점 수업후가 15.06점으로 거의 변화는 없었다.

기본적 자존감항목 BASE의 평균치는 수업전이 19.99점 수업후가 20.25점으로 거의 변화는 없었다.

SOS를 보내는 법에 대한 지식이 정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전후 회답경향에 차를 카이제곱분석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질문19는 수업전 220명이 회답하였으며, 수업후 236명이 회답하였다.

질문20은 수업전 221명이 회답하였으며, 수업후 237명이 회답하였다.

질문21의 (A)는 수업전 106명이 회답하였으며 수업후 113명이 회답하였다.

질문21의 (B)는 수업전 114명이 회답하였으며 수업후 124명이 회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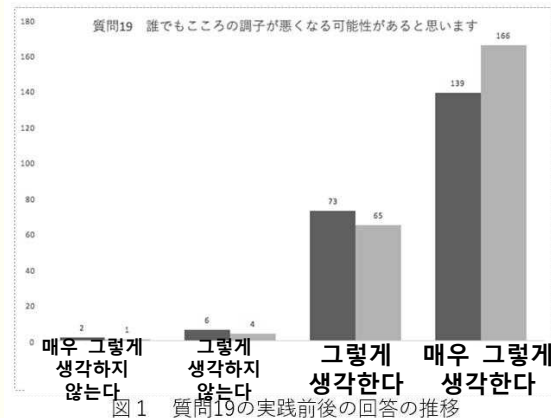
Q19. 누구라도 마음의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20.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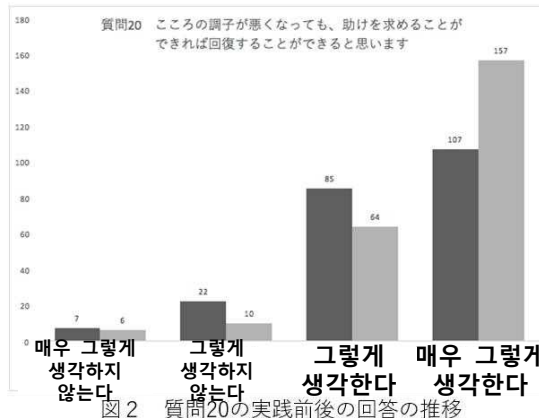
Q21(B). 마음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학교에 있는 어른은 물론,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 상담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NDEX: 수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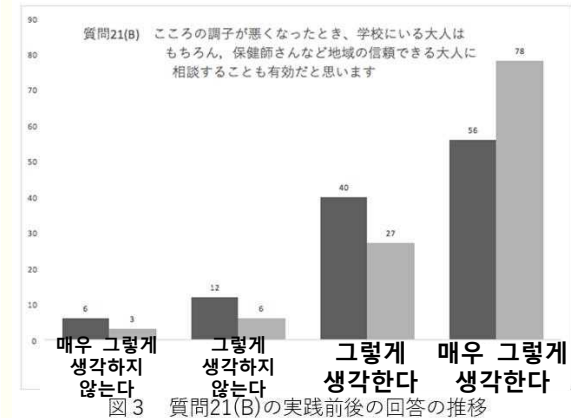
수업후



질문19는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수업 후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가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chi^2(3, N=456)=3.03, n.s.$).



질문20은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매우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한 학생이 1%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chi^2(3, N=458)=16.48, p<.01$).



질문21(B)에는 위와 같이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한 학생이 증가하여, 10%수준으로 유의미한 증가 경향이 보여졌다.

($\chi^2(3, N=238)=6.32, p<.10$). 따라서, SOS를 보내는법에 관한 지식을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어느정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②기술에 관한 분석

설문용지에는 ‘오늘 강좌에서 새롭게 배운 것, 인상에 남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란 자유기술형식으로 회답을 구한 결과, 87명의 학생으로부터 회답이 있었다.

“괴로울때 주변 사람에게 상담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생명은 소중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일이 생기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늘의 강좌에서 SOS시 대처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저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등 강좌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상이 기입되어 있어, 일정 이상의 성과를 올린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또, D중학교 학생의 자유기술란에서는 복수의 학생이 “학교 선생님 이외의 보건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보건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보건사가 참가한 것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것은 수업 진행자 뿐만아니라 지역의 자원이되는 사람이 참가하는 편이 보다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③성과 및 과제

「SOS를 보내는 법 교육」의 수업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자기긍정감을 높이는 기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들이 보다 SOS를 보내는 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향상된 것을 시사되고 있다.

또한, 지역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참가함에 따라, 보다 그 이해가 구체적인 것이 되어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도 추측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공유체험의 교재로써 ‘쌓아 올린 집’을 활용하고 있다. 마을이 해수면 상승으로 잠기는 스토리이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고향이 쓰나미로 인해 파괴되었다.”란 발언을 한 학생이 있었다.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수업시, 본 교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별도 교재를 찾고 있는 중에 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북해도 각지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교재를 사용한 다른 진행자(교사에 의한) 수업진행을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하여】

- (1) 수업에서 활용한 DVD “쌍아 올린 집 La maison en petits cubes”
(감독: 카토 쿠니오 (주)로보트, 2008년)은, 그림책 “쌍아 올린집”(그림·카토 쿠니오, 글·히라타 켄야, 하쿠센샤, 2008년)으로도 출판되고 있다. 수업에서는 DVD의 일부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림책을 활용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 (2) 본 발표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본교의 교육실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DVD, 그림책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자료의 무단 복사나 무단게재를 금한다.
- (3) 본 발표자료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소개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북해도교육대학 교직대학원 ‘생명교육 프로젝트’

e-mail: inochi.kyouiku@gmail.com

한국의 여러분과 협력하여, 초중고생
·젊은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계발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사멤버

이도 마사미(북해도교육대학 교직원대학원 교수·원장)
우메무라 타케히토(북해도교육대학 교직원대학원 특임교수)
카와마다 토모미치(북해도교육대학

교직원대학원 준교수)

한국판작성·번역

이 재원(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시니어 컨설턴트)

